



2대리구 용성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2주일 2022. 03. 13. (다해) 제2312호

제1독서 창세 15,5-12,17-18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2독서** 필리 3,17-4,1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루카 9,28ㄴ-36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참 행복을 위한 선택

고아본당 주임 | 권오관 득인 베드로 신부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차피 다시 내려올 건데 왜 땀 흘려 올라가는 거야? 힘만 들지.’ 그러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 자체를 즐기고, 그것으로 행복해합니다.

선택. 사람은 누구나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선택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선택들, 힘들고 어려운 선택들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들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십니다. 특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거룩한 변모 앞에서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 편안하고 쉬운 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전도여행보다는 화려하고 편안한 이곳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편하고 쉬운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편하고 쉬운 길만을 선택하려는 어리석음을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세상이 유혹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우리 스스로 기쁘게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궤도**



다윗 I (1사무 16장-1열왕 2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예수님의 족보를 여는 첫 말마디는 “다윗의 자손”(마태 1,1)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그의 14대(代)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불리고 있지요. “다윗의 자손”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고유한 호칭인데, 마태오 복음사가는 복음의 첫머리부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자 음악가인 동시에 강인한 용사요 군사가로서, 후대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1열왕 11,4.6; 15,3.11) 이스라엘 최고의 성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많은 왕들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임금”(마태 1,6)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실패한 임금 사울 대신 통일 왕국의 첫 임금이 되어 당신 백성을 인도할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예언자는 이사이의 일곱 아들들 중 가장 늙은한 맏이 엘리압을 내심 점찍었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1사무 16,7) 하신 하느님은 그를 깨우치셨고, 들판에 남아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에게 도우하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일곱 형들이 아닌 ‘여덟째’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이름(그리스어 예수스 ΙΗΣΟΥΣ: 숫자로는 888)을 찾거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일곱째 날) 다음 날인 ‘여덟째 날’(‘주일’: 가톨릭교회 교리서 2174항 참조)에 부활하셨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느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될 다윗에게서 보신 그 ‘마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갓길 열망하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란, 하느님을 거칠게 모독하는 거인 전사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1사무

17,45)라고 외치던 다윗의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대한 악과 압박한 죽음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요한 16,32)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 말이지요. 그리고 정적(政敵) 사울을 죽일 기회마다 부하들이 다윗을 종용하던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아니냐?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1사무 24,7.11; 26,9.11.23) 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고된 도피 생활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우선했던 다윗이었지요. 또 임금이 된 이후 하느님의 계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던 날은 어떠했나요? 행렬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던 그를 아내 미갈이 체통머리나 지키라 조롱할 때, “(주님 앞에서)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2사무 6,22) 하며 오직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영원을 한순간처럼 꿰뚫어보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시던 그때, 평생 오직 당신만을 향할 그 다윗의 귀한 마음들을 미리 앞당겨 보고 계셨던 것이었겠지요.

하느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님의 탄생과 그분의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은, 다윗이 자신의 도성에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 그분의 현존 속에 살고자 강렬히 열망했던 바로 그때였음을 되새겨봅니다(2사무 7장). 우리의 하루가 때로는 산골 양치기같이 남루하고, 때로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장애 앞에서 무력감에 젖기도 할 테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다 지쳐버리지 말고, ‘당신을 향한 내 진실된 마음’ 그 하나만을 보시는 하느님, 나를 기름부어 세우셨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느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간직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왕 다윗을 닮아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을 힘차게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

교황, “무력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2022년 2월 28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창욱



슬로바키아와 접경지역에 몰려든 우크라이나인들(AFP or licensors)

‘촛불’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2월 28일 트윗 메시지와 함께하기 위해 선택된 이미지다.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60항에서 발췌한 이날 트윗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로도 게시됐다.

**“평화의 명분은 모든 개별 이해타산이나
무기 사용에 대한 모든 신뢰보다 더 강합니다.”**

교황의 트윗 메시지는 이러한 인용문과 함께 #PreghiamoInsieme(#함께_기도합시다)와 #Ucraina(#우크라이나)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평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

“우리는 기도로 저항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동방 가톨릭교회’ 수장 스비아토슬라프 셰브추크(Sviatoslav Shevchuk) 상급대주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사람을 죽이는 비인간적인 얼굴의 만행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3월 2일이 그레고리오력을 사용하는 신자들에게 사순절 첫날임을 상기하며,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는 매우 특별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 주일 삼종기도의 말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한다고 말한 교황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셰브추크 상급대주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외교를 제시하며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우리는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바르톨로메오 1세 세계 총대주교의 기도

지난 2월 27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인 바르톨로메오 1세 세계 총대주교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침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다.”라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르톨로메오 1세 세계 총대주교의 지지 표명”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송 베네딕토
(1798 - 1867년)



송 베드로
(1821 - 1867년)

송(宋) 베네딕토와 그의 아들 송(宋) 베드로는 충청도 충주 서촌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쳐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송 베네딕토는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아들 송 베드로 가족과 함께 진천 배티 교우촌(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교우촌 신자들과 어울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났고, 이듬해 봄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한양 포졸들이 배티로 들이닥쳤다.

배티로 몰려온 포졸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송 베네딕토를 비롯하여 아들 송 베드로의 가족 모두를 체포하여 진천 관아로 압송하였다. 그런 다음 경기도의 죽산 관아로 끌고 가서 가두었다가 다시 한양으로 이송하였는데, 이때 체포된 이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송 베네딕토와 그의 아들 송 베드로와 송 베드로의 딸, 송 베드로의 며느리인 이 안나, 그리고 이 안나의 아이 등 모두 5명이었다.

이들 가족은 한양으로 압송된 뒤에 모두 신앙을 굳게 지킨 다음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으로 당시 송 베네딕토의 나이는 69세였고 그의 아들 송 베드로는 46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50. 사랑의 결실 ②

임신은 힘든 기간이지만 경이로운 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하느님께 협력하여 새 생명의 기적을 낳습니다. ... 임신한 어머니는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여 자신의 아이를 온전히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사랑은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사랑을 보여 주시는 도구입니다. 저는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지켜서 그 어떠한 것도 모성의 내면적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힘들겠지만 이러한 순수한 기쁨을 청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청하여 그 기쁨을 여러분의 아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랑의 기쁨』 168-171항)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선종 1주기 추모 미사

2022. 3. 14 (월) 오전 11시

† 가톨릭 군위묘원 주례 _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성모당 주례 총대리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외출, 여행 자제하고 집콕 문화생활 실천해보기

(독서, 온라인 전시회 이용, 가족끼리 동네 한 바퀴 등)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61호 정답

1. 예루살렘 함락 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2. 내 양 떼
3. (멸망했던) 온 이스라엘의 집안, 숨(하느님의 영) 4. 주님, 영광, 주님, 집, 어좌, 자리, 영원히 살 곳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14일(월) 10:00 황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9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3월 19일(토) 11:00 성모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3.19(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3.27(일) 11:00~16: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예수회 한국관구 성소실

문의: vocation.sj@gmail.com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3.15(화)~16(수)

수난 24일 기도: 3.21(월)~4.13(수)

문의: (054)382-0091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일시: 4.14(목) 16:30~17(일)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9만원 /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도미니코회봉쇄수도원 성삼일 피정

대상: 만35세 미만 여성

일자: 4.14(오후)~17(오전)

문의: (010)6561-2906 / (043)651-2906

http://www.dominicocorea.com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심화 피정

일시: 4.28(목)~5.1(일)

장소: 수리치골 성모성심의집

지도: 허성준 신부 외

인원: 32명(1인실) / 비용: 35만원

신청: 한빛다 봉사자, (010)8599-3127

교구 외 | 기타 알림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신앙여정,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킵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가·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마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출추개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옥 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힐스피부과

색소·에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 (요셉)

☎ (053) 431-3377

대구 2, 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혁명병원 3층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청담병원 3층
청라언덕(산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아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국내 국제 24년 전통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 운영
대구신문 결혼 칼럼니스트
안동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산나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비법! 책 출간
M. 010.6571.3385

† 이문희 대주교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3월 14일(월) 11:00
장소: 가톨릭 군위묘원
성모당
기일: 3월 14일(월)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성환(빅토리노) 신부
1982년 3월 19일

교구 | 대리구 알림

교구청 사제관 주방 여직원 채용

자격: 55세 이상 신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3.18(금) 15:00
제출: 교구 관리과, (010)4926-3224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일자: 4.6(수)~4.7(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3.24(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직업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바리스타, 요리, 목공, 플라워,
네일, 베이킹, 반려견교육
대상: 14~24세 청소년 누구나
수강료: 전액무료 상시모집

문의: 대구청소년창의센터, 474-4840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33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입학식: 3.21(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비용: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7차: 3.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피규린(성경인물) 성경공부반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성경공부
일시: 3.17~5.26 매주 목 10:00~12: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문의: 783-9817 / (010)2889-3342

그레고리오성가 수강생 (9기)모집

개강 및 시간: 3.20(일) 매주 14:00
장소: 공평동 톡쟁베네딕도 베네센터
등록: 3.17(목)까지
내용: 기본이론(15주) 및 실습(30주)

사전문의(필수): (010)2805-8504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3.14(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주제: 성지주일·성삼일 예절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구약(금 10:00, 19:30)
신약(수 10:00, 19:30)
심화반: 시편(월 10:00, 19:30)
다시읽는 구약성경: 역사서(수 14:30)
문의: (010)3475-3431 / (010)8750-6573

2022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수)
구약반: (수) 10:00, (월) 20:00
신약반: (화) 10:00, (화) 20:00
심화반: (수)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치과, 영상의학과
문의: (053)320-2120, (010)7372-0076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맥)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정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용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4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진수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안마바우처
대구 전지역 대환영
근골격계·신경계·자세교정
053)425-7695~6
38년 전통 **약손** 이 루카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호선 데보라